

[종합]

新年辭

새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은 힘차다. 지난 1년이 남긴 어둠을 뚫고 솟아오른 해기에 더욱 그렇다. '근면과 인내의 소띠해' 2009년을 열어 쫓아오는 태양은 더 새롭고, 더 크고, 더 찬란하다.

글로벌 경제 한파가 몰아쳐도, 정부가 지방 살리기를 끝내 외면해도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열어나가는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정쟁으로 날을 지새도, 지역·계층·이념 갈등이 국민통합의 발목을 잡아도 도전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다.

올해 우리 경제는 한 줄의 빛도 없는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기업들이 줄도산하며,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너도나도 '생존'을 화두로 뛰지 않을 수 없는 때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비관으로 흐르지는 말자.

근거 없는 낙관에 매달려서 병혹한 현실을 무시해서도 안될 것이다.

우리가 맞서야 할 폭풍우는 사상 유례없는 초대형이다. 세계적 경제 한파를 맞는 대한민국은 누적된 사회적 모순들을 한꺼번에 터트릴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는 지난해 촛불 시위를 주도했던 '대중'에 그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민생은 아랑곳없이

서야 대한민국 호(號)를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다.

노사관계도 생산성을 따져야 할 때가 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와 사용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작금의 노동환경으로는 생존보다는 공멸의 길로 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익이 있으면 이익을 나누고, 뼈를 깎는 고통이 닥쳐오면 고통을 함께 나누는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다. 자립과 경쟁은 그 다음이다.

지방의 뚝은 정부를 끝까지 설득하고, 자체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부정 부패와도 고리를 끊어야 한다. 아이디어와 역량을 모아 지방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든 중앙정부에서 돈을 가져다가 뭔가를 해놓으면 된다는 식의 지

임을 분명히 하자.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위기를 풀어나가는 것은 쉽지 않다. 무작정 열심히 일하고 애국심을 발휘하던 원초적 노력만으로 헤쳐날 수 있는 통상적 위기가 결코 아니다. 발상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 선두에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한다. 지도자가 제자리를 찾아야 비전도 있다.

도전할 대상이 없으면 오히려 경쟁력은 떨어진다.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이 우리의 밑천이다.

70년만의 대공황이라는 폭풍이 몰아오고 있다. 폭풍을 마주하려면 멀리 내다봐야 한다. 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소처럼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 폭풍우는 거칠수록 빨리 지나간다는,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다는 것이 진리다.

광주일보를 새해에 맞아 광주·전남에 속명처럼 따라붙은 '낙후'를 떨쳐버리고, 역동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지역민과 어떻게 하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는 데 앞장설 것이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 다시 뛰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다시 뛰자, 우린 이겨낼 수 있다

보수 대 진보의 이분법적 이념대결에 골몰한 때문이다. 우리 정치는 시대착오적 이념의 갈등이 자아내는 오해와 분열을 뛰어넘어야 한다. 국가 주도나 시장 주도나, 분배가 먼저냐 성장이 우선이나 하는 지루한 논쟁도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미증유의 경제위기에 맞서려면, 이념으로 인한 사회 갈등은 합의와 타협의 용광로에 녹여 내야 한다. 정치가 바로

'나눔의 잔치'가 공존의 드라마를 쓰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수도권의 '식민지'로 전락한 지방의 위기도 넘어야 할 산이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변화가 절실하다. 지방에 오는 기업까지 빼앗아 놓고 지방 발전을 알아서 책임지라는 현재의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지방에 권한과 재정을 돌려줘야 한다. 지방이 살아

방자치는 이미 끝났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에도 지방은 치열하게 뛰어들어야 한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중앙 정치에 맡기고 마는 반쪽 자치에 더 이상 머물지 말자. 경제 위기를 빌미로 중앙집권체제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행정의 효율도 중요하지만, 주민자치의 기본 정신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

용기와 희망으로 위기 이겨내자

이명박 대통령 신년사



로서 저도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새 날을 맞습니다. 우리는 과거 어렵고 힘든 때에도 하나 되어 이겨냈고, 가장 힘들다고 하는 이 위기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거센 바람과 거친 파도를 헤쳐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듭시다.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경제주체는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느 나라보다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격려하며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00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해외 동포와 북한 동포들께도 따뜻한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언제나 새 날은 우리에게 희망과 설렘을 주는 가슴 벅찬 날입니다. 비록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많이 어렵더라도 이 새 아침에 우리 모두 용기와 희망을 노래합시다. 우리의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훨씬 나은 것이라는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열원을 잘 알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FTA 전방위 확대... 경제외교 중점"

"남북대화 재개 땀 北 철도·도로 개·보수"

외교·통일부 업무보고

외교통상부는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내년 1분기 중 타결, 2010년부터 발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009년을 남북관계 전환의 해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남북관계가 정상화하면 북한 내 철도·도로 개보수와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방부, 통일부와 공동으로 가진 '2009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내년에 ▲경제살리기 외교 ▲한·미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3대 우선 과제로 선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경제살리기 외교의 일환으로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인 FTA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연내 타결을 추진했다. 미워진 EU와의 FTA협상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한 뒤 2010년 1월부터 발효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이미 실질적으로 타결된 인도와의 FTA도 내년 내에 발효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통일부도 이날 내년 한해 통일정책의 목표를 '새로운 남북관계로의 전환을 통한 안정적·생산적·호혜적 남북관계'로 설정하는 등 주요 업무를 보고했다. /연합뉴스

각계 新年辭

하계 U대회 유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올인

박 광 태 광주시장

국난 극복의 선봉에서 왔던 광주시민의 저력을 발휘해 경제위기를 이겨내고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1등 광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경기가 부양될 수 있도록 금년도 재정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대 주력산업 중 자동차 산업과 관련,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걸맞은 친환경



경 자동차 생산을 위해 '미래형 클린디젤 자동차 부품산업'을 본격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월에는 '2015년 하계U대회' 개최도시가 결정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힘을 결집하고 지난해 축적된 경험과 국제적 인지도를 활용해서 우리 광주에 반드시 유치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민·소상공인·중기인들에 힘 실어줄 터

강 박 원 광주시의회의 의장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광주시의회의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산적 의정활동을 펼쳐 모두가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이번에는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시장을 비롯 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환경시설에 대한 현장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J프로젝트·F1 대회 행정절차 마무리 짓겠다

박준영 전남도지사

꿈을 더 크게 이루시고 더 행복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정부와의 견해차이를 해를 넘기게 된 J프로젝트와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행정절차를 올해는 반드시 매듭짓겠습니다. 올해 최우선 도정과제는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일자리와 농어촌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도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하겠



습니다. 전통산업과 미래첨단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희망을 마다하지 않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 잡아왔던 의로운 땅 전남을 이제는 국가경쟁에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자부심과 포부를 갖고 전남의 내일을 함께 준비합니다.

민생현장 직접 찾아 도민에 신뢰받는 의회 실현

박 인 환 전남도의회 의장

가정에 항상 민복이 깃들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민생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도민의 참 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이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물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 F1국제자



자동차경주대회, J프로젝트와 공동혁신도시 건설 등 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침체한 지역경제 회생에 역점을 두고, 농어촌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광주일보 신춘문에 당선작

- 소설-차노취
- 시-김재준
- 동화-정인순
- 얼굴을 보다
- 증명사진
- 또야또 아줌마
- <광주시 남구 진월동>
- <광주시 광산구 산월동>
- <광주시 남구 진월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19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900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다자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사회 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에리시아

나이스메디칼(주)복합

대명도어산업

오박골